

“군민 명예회복·깨끗한 군정 펼것”

6·13 지방선거 표발 점검

■해남군수 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이름(나이)	이길운(52)	명현관(55)	이정우(58)
주요경력	전 해남군의회 의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	전 해남진도축협 조합장
주요공약	·자치 민주화 기반 완성 ·참여형 공동체 기반 조성 ·자주적 복지 기반 설계 ·지속적 생산 기반 확대 ·생활체육 일상화 실현	·풍요로운 농어촌 ·체육형 문화관광 ·따뜻한 복지 ·쾌적한 교육환경 ·활기찬 경제	·소통·투명 행정 실현 ·농어촌기초수당 월 20만원 지급 ·해남형 주민참여자치제도 도입 ·청소년자립센터·청년다짐센터 설립 ·두륜산·망골·우수영 관광벨트 조성

■해남군수

해남군수 선거는 3파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길운 후보와 민주평화당 명현관 후보, 무소속 이정우 후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길운 후보와 명현관 후보는 풍부한 의정경험을, 이정우 후보는 5선 축협조합장 경력을 내세우며 “깨끗한 군정을 펼것다”고 다짐했다. 앞서 3명의 군수가 비리로 연달아 낙마한 탓에 세 후보 모두 도덕성을 기치로 내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이 후보는 3선 군의원 역임하며 해남군의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소신있고 지조있는 정치인, 똑심있고 정직해 일 맡겨볼만한 정치인이라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는 공약으로 자치 민주화 기반 완성을 위해 ‘조연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군민청원관을 개설해 군민 요구에 응답하고, 갈등·행정 의혹 해소를 위한 공익조사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회파 발행, 공동체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사회적농업·사회적경제 연계한 사회적유동 체계 확립, 농민수당 지급, 대중국 수출을 위한 농수산물 물류단지 추진, 인공지능 스마트팜 조성, 김·전복 등 해남 수산물 브랜드 강화 등도 약속했다. 그는 특히 10년 뒤 해남의 자산으로 거듭날 대홍사관 대단위 단풍나무숲 조성 등 미래 자산 투자도 제시했다.

평화당 명 후보는 “62년만의 해남 출신 전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며 “도의회 의장의 능력과 경륜을 해남군정으로 옮겨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민이 우선이고, 정당보다는 후보가 우선인 선거를 통해 해남군이 명예를 회복하고 깨끗한 사회를

3명 군수 비리 혐의 잇따라 낙마...도덕성 강조

민주 이길운-평화 명현관-무소속 이정우 3파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정의 패러다임을 운영에서 경영으로 혁신하고, 이통군수실 운영·원스톱 행정서비스로 군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해남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기업투자유치 확대, 농산물 대표축제 개발, 농가기본소득(상품권 지급) 도입 등 CEO형 군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작은영화관 및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빛의 숲 조성, 울돌목 충무공 성역화 사업, 세계땅끝박물관 등 체류형 문화관광 사업과 농어촌버스 도우미 도입, 노인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유치원·초·중·고교 교실 공기정화기 설치 등 복지대책도 내놨다.

무소속 이 후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군민들에게 제출, 색다른 선거운동을 펴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군수는 무엇보다도 정직함과 청렴

함이 우선돼야 한다”며 “과거 해남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민에게 어떤 약속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한 끝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교환 캠페인’을 구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군수직을 1층 민원실로 축소·이전해 군민과 시·공간적 거리를 줄이고 군민과 자주 접하며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또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촌가치수당’을 월 20만원 이상 지급하고, 이 중 50%는 ‘해남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남형 주민참여자치제와 해남형 주민참여투표제 도입, 청소년자립센터와 청년다짐센터 설립, 두륜산·망골·우수영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과 장애인·노약자가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 전환도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전남도 투자 유치 혼풍...올 1조7000억 협약

에너지 등 97개 기업과 체결 지식정보 문화산업 유치 주력

전남도가 올해 들어서만 1조7000억원 대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모두 실현되면 3270여명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97개 기업과 모두 1조714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별로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에 38개 기업, 영광 12개, 담양·강진·영암 각 6개, 해남 5개, 장흥 4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분야가 34개 기업으로 가장 많고 식품 가공 23개, 철강 기계 11개,

석유화학 5개, 전기차 분야 4개 등 순이다. 97개 기업 가운데 68개는 신규 투자, 나머지 29개는 다른 지역에서 이전을 약속했다.

분양이 저조해 전남도가 중점 관리하는 7개 산단 평균 분양률도 47.1%로 지난해 말보다 7.4% 포인트 늘었다. 외국인 투자기업인 독일 바스프는 여수 국가산단에 877억 원을 투자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공장을 완공했다. 프랑스 에어리퀴드도 여수산단에 2019년 말까지 1천570억 원을 투자해 수소·일산화탄소 생산공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화천기공과 어스텍은 영광 대마산단에 각각 288억원,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전남도는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자동차 튜닝, 식품, 생물, 드론 등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 제조업 위주 양적 기업 유치에서 젊은층이 선호하는 지식 정보 문화산업·청년 창업기업 등 질적으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다만 구속력 없는 MOU 체결 후 투자가 불거지는 사례도 우려돼 협약 후 관리 능력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올해 300개 기업 유치로 6천명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8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효행·자원봉사 귀감 광산구 선종석씨 대통령표창

광주시, 어버이날 기념행사

광주시는 8일 오전 빛고을 시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제4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자원봉사자들이 대한노인회 광주지회 오병채 회장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4개 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들의 공연, 유공자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신들의 공연, 유공자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자녀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고 효행·자원봉사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광산구 선종석(72)씨가 효행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남구 임광섭(71), 북구 정세민(15), 광산구 방성자(여·51)씨와 함께 남구 사랑봉사단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

하는 등 효행자와 장한 어버이, 노인복지 증진 기여한 단체, 공무원 등 25명에게 정부포상, 광주시장 표창장과 표창패가 수여됐다.

정종제 시 행정부시장은 “어르신들을 모두의 부모이자 스승으로서 공경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는 없다”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생활복지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동물단체·수의사회 참여 반려견 등록 캠페인

광주시가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을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동물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집중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출 시 반려

견에게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소유자 성명,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이고, 인식표 부착 반려견도 많지 않은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 기간에 관내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를 하고 반

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등록일 경우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인식표(1000개)를 달아줄 방침이다.

캠페인은 ▲10일 동구 계림동 인근 푸른길공원을 시작으로 ▲11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거창이쉼터 ▲18일 광산구 어등산 산책로 등에서 린다. 또 5월 하순에는 각 구별로 한 차례 더 실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2선거구 모두 민주-평화-무소속 ‘한판 승부’

■전남도의원(해남)

해남에서는 2명의 전남도의원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치열한 배지 다툼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업고 공세에 나섰고, 평화당은 지난달 초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텃밭 사수에 들어갔다.

제1선거구(해남읍·마산면·황산면·산이면·문내면·화원면)에서는 민주당 김성일 후보와 평화당 최재희 후보, 무소속 정광춘 예비후보가 경쟁한다.

김 후보는 비례대표 전남도의원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장, 광주전남농민연대 상임대표, 국민농업 전남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낸 농업경영인이다.

반면 최 후보는 최재천 국회의원 비서관과 서울중구정장 비서관을 지냈다. 젊고 세대감에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등 SNS를 적극 활용해 유권자와 소통하고 있다.

정광춘 예비후보는 평화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돌연 무소속으로 선회했다.

제2선거구(삼산면·화산면·현산면·송지면·북평면·북일면·육천면·계곡면)에서는 민주당 조광영 후보와 평화당 박성재 후보, 무소속 심재신 예비후보 3파전이다. 단수 공천된 민주당 조 후보는 3선 해남군의회를 역임, 풍부한 의정 경험을 전남도의회로 옮겨 펼치겠다는 각오다.

평화당에서는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박성재 후보를 내세웠다. 땅끝농협 이사, 땅

■해남 도의원 후보

선거구	이름(나이·정당·경력)
제1선거구	김성일(52·민·전 전남도의원) 최재희(48·평·전 국회의원 비서관) 정광춘(54·무·전 성화대학 겸임교수)
제2선거구	조광영(57·민·전 해남군의원) 박성재(57·평·전 전남도의원) 심재신(56·무·북평면 남창리장)

민=더불어민주당, 평=민주평화당, 무=무소속

끝체육회 회장, 해남군수협 대의원, 법무부 법사관위원 등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무소속 심재신 예비후보는 공무원 출신의 행정학 박사로서 북평면 남창리 이장을 맡고 있다. 공직 경력과 행정이론가로서 전남도정의 견제·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출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he 19th 2018 Jangseong Hong Gildong Festival

기간 2018.5.18(금) ~ 5.20(일)

장소 황룡강변(공설운동장) / 홍길동 테마파크

KBS 전국노래자랑 5.19(토) 오후 1시 본선 녹화

제19회 전남 장성 홍길동 축제

황룡강 봄꽃 상춘객 맞이 5.18 ~ 27(10일간)